

祭祀와 관련된 ‘示’ 부수 漢字에 반영된 고대 중국인의 文化思維

－ 天地人 神靈을 대표하는 ‘神’ ‘祇’ ‘社’ ‘祖’를 중심으로

이인경*

<目 次>

1. 들어가는 글
2. ‘示’와 고대 중국의 祭祀文化
 - 1) 祭祀文化에 반영된 고대 중국인의 文化思維
 - 2) ‘示’에 반영된 고대 중국인의 文化思維
3. ‘神’ ‘祇’ ‘社’ ‘祖’와 고대 중국의 祭祀文化
 - 1) ‘神’ ‘祇’와 天地 神靈에 대한 祭祀
 - 2) ‘社’와 土地 神靈에 대한 祭祀
 - 3) ‘祖’와 祖上 神靈에 대한 祭祀
4. 나오는 글

1. 들어가는 글

上古시대 문화는 문자와 고고학을 통해 발굴된 고대 문물이나 문헌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의 사상이나 종교 및 생활방식을 고고학적 유물과 문자를 통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자는 인류의 文化思維를 반영한 문화 부호라 할 수 있다. 漢字에도 고대 중국인들의 문화사유가 반영되어 있어 이것을 통해 중국의 전통문화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 祭祀는 상고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이행되고 있는 중국의 전통문화로서, 이것은 중국 사회와 문화 발전에 따라 각 시대의 文物이나 제도로 구현되었다. 때문에 고대 중국의 제사문화는 한

* 단국대학교 중국어과 강의전담조교수.

자 발생에 연유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사와 관련된 한자에는 제사문화뿐 아니라 고대 중국인의 문화사유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說文解字』는 東漢시대에 완성된 중국 최초의 字形분석과 字義를 해석한 字典으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 고대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그 중 제사와 관련된 한자는 ‘示’를 부수로 한 글자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 문자의 분석은 고대 중국의 제사문화와 문화사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설문해자』의 67개 ‘示’ 부수 한자들 중에서 상고시대부터 줄곧 숭배되며 제사의 주요대상이 되었던 天地人 神靈을 대표하는 한자 ‘神’, ‘祗’, ‘社’, ‘祖’를 문화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중국의 제사문화와 그 문화사유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제사란 사람과 자연의 분화 이후 발생한 인류 사회 활동 중 하나로,¹⁾ 어떤 대상에 대한 숭배와 경외의 마음이 행위로 표현된 것이다. 숭배란 인류가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자연현상을 이해하거나 다스릴 수 없었기에 경외하고 애걸할 수밖에 없었던 원시의 문화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다.²⁾ 그러니까 상고시대 원시인류는 통제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우주를 자연의 어떤 신비로운 의지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라 여겼기에, 天象, 동물, 토지와 산천, 농작물, 조상에 이르기까지 그 숭배 대상이 다양하였던 것이다.

이 중 祭天和 祭地는 상고시대의 가장 원시적인 제사행위로서 이것들은 모두 자연과 관계가 있다.³⁾ 과학적 인식의 제고와 인식 수준의 향상은 인류 자신의 역량을 깨닫게 하여, 제사행위는 선조나 제왕 등 인간에게까지 그 숭배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史記』에서 “위로는 하늘을 섬기고, 아래로는 땅을 섬기고, 조상을 높이고 임금을 받드니, 이것이 예의 세 가지 근본이다.”라 하였듯이,⁴⁾ 고대 중국에서는 다양한 신령에 대한 제사가 하늘, 땅, 사람을 중심으로 이행되었다. 이것은

1) 尹玉龍, 「淺析《說文解字·示部》字與上古祭祀習俗的互現性」, 『河北北方學院學報(社會科學版)』第28卷, 2012. 26쪽, “祭祀是在人與自然分化后產生的, 是人類的一種社會活動…”

2) 劉志成, 『文化文字學』, 成都, 巴蜀書社, 2001. 326쪽 참조.

3) 尹玉龍, 앞 논문. 26쪽. “在上古的祭祀中, 祭天、祭地是最爲原始的兩種祭祀活動, 二者皆與自然相關。”

4) 司馬遷撰,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92. 『史記·禮書』, “上事天, 下事地, 尊先祖而隆君師, 是禮之三本也。”

천지인을 세상의 근본으로 여겼던 고대 중국인의 우주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있다.⁵⁾ 雷漢卿은 신에 대한 경외감이 행동으로 체현된 것이 제사이고, 『설문해자』 '示' 부수 한자들은 天神, 地神, 人鬼에 대한 숭배와 경배의 심리를 집중적으로 나타내었다고 하였으니,⁶⁾ 이 역시 이와 같은 우주관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대 중국인의 우주관을 바탕으로 제사의 주요 대상을 대표하는 한자를 문화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제사문화와 그 문화사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자와 제사문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설문해자』 '示' 부수 한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설문해자』 '示' 부수 한자들에는 상고시대 제사문화뿐 아니라 이후 봉건사회의 제사 풍속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고대 중국의 제사문화와 『설문해자』 '示' 부수 한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의 연구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설문해자』 '示' 부수 한자를 몇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제사의 대상, 종류, 방식과 물품에 따른 분류라든지, 문자의 의미에 따른 분류, 제사 목적과 장소 및 종류에 따른 분류, 제사 행위와 목적 및 방식과祭品에 따른 분류 등으로 구분해 『설문해자』 '示' 부수 한자를 정리하였다.⁷⁾ 이 분야에 대한 한국의 연구도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⁸⁾

-
- 5) 李建國, 「從示部字族探討祭祀禮儀文化」, 『價值工程』, 322쪽. 고대의 우주관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天地人이었던 것처럼 제사의 주요 대상도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외 다른 기존의 연구에서도 천지인을 중심으로 제사의 주요대상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 6) 雷漢卿, 「《說文》“示”部字所反映的古代宗教文化釋證」, 『四川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3期, 1997. 67쪽 참조.
- 7) 示 부수 한자를 문자 의미에 따라 7개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으로는 “雷漢卿, 「《說文》“示”部字所反映的古代宗教文化釋證」, 『四川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3期, 1997.”이 있다. 제사 목적, 대상, 방식과 제품 및 결과 등 적게는 네 가지에서 여덟 가지에 이르기까지 제사 활동에 근거해 '示' 부수 한자를 구분한 것으로는 “李建國, 「從示部字族探討祭祀禮儀文化」, 『價值工程』, “李琢·李萍, 「《說文解字》“示”部反映的祭祀文化」, 『廣西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30卷, 2008.”, “趙雲濤, 「試從《說文解字》示部字看我國古代祭祀文化」, 『宜賓學院學報』第7期, 2009.” 등이 있는데, 분류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어떤 분류에 따라 '示' 부수 한자를 정리하다보니 글자를 단순히 나열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많다. 이외에도 “胡靜, 「文化學視覺下的“示”部字與鬼神思想」, 『安徽文學』第11期, 2009.”과 “單曉琳, 「《說文解字》“示”部字看上古的自然崇拜」, 『西南科技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26卷, 2009.” 등에서는 '示' 부수 한자를 고대 원시사유인 귀신사상과 자연숭배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기존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사유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문자 분석을 통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

따라서 본고에서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온 제사문화와 관련된 『설문해자』 ‘示’ 부수 한자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숭배의 원시사유와 고대 중국인의 우주관에서 비롯된 제사의 주요대상 천지인 신령을 대표하는 한자를 문화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고대 중국인의 문화사유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고대 중국의 제사문화와 ‘示’ 부수 한자들의 근간인 ‘示’를 분석하여, ‘示’ 부수 한자들에 반영된 그들의 문화사유를 이해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사의 주 대상이 된 천지 신령 ‘神’과 ‘祇’, 토지 신령 ‘社’, 인간 신령의 대표 ‘祖’를 분석하여 고대 중국의 제사문화와 그들의 문화사유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설문해자』를 비롯하여 甲骨文과 金文 등의 字形,⁹⁾ 原始社會史와 宗教思維 및 中國宗教史와 古代典籍 등을 통해 고대 중국인들의 문화사유가 ‘示’를 비롯한 ‘神’ ‘祇’ ‘社’ ‘祖’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 고대 중국의 제사문화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2. ‘示’와 고대 중국의 祭祀文化

세상 만물에 靈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이나 조상숭배, 祭祀 占卜 등의 上古시대 사회의 종교 활동에는 당시 사람들의 文化思維가 반영되어 있다. 때문에 한자의 字形 분석에 우선하여 고대 중국의 제사문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 示 부수 한자들의 뿌리인 ‘示’를 분석하여 제사문화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여기에 반영된 고대 중국인의 문화사유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왔다. 이 외에도 《설문해자》 ‘示’ 부수 한자를 語義에 의해서만 단순 분류한 경우도 있다.

8) 서재선, 「중국 문자에서 본 祭祀文化에 관한 고찰 -《說文解字》示部를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17집, 2008. 여기에서도 제사 목적과 장소 및 종류에 따른 분류, 제사 행위와 목적 및 방식과 祭品에 따른 분류 방식에 따라 『설문해자』 ‘示’ 부수 한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기존의 중국 연구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논문을 제외하면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미진한 편이므로 앞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9) 본고의 갑골문과 금문은 “<http://www.zdic.net>”과 “左民安, 『細說漢字』, 北京, 九州出版社, 2005”의 자형을 참고해 인용했다.

1) 祭祀文化에 반영된 고대 중국인의 文化思維

고대 중국의 祭祀는 神靈 숭배의 중요 형식으로, 그 주된 목적은 신령의 은혜에 감사하고 복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종교적 측면에서 보면 제사는 종교 활동의 구체적인 형식으로 이것은 인간이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령에게 음식이나 제물 등을 드리며 신이 내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구복의 소망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祭'와 '祀' 두 문자를 통해 제사에 대한 고대 중국인들의 문화사유를 살펴본 후 제사의 유래와 대상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1) '祭' '祀'와 고대 중국의 祭祀

'祭'는 『說文解字』에서 “제사를 의미한다. 示는 의미를 뜻한다. 손에 고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하였다.¹⁰⁾ 아래 甲骨文 祭의 字形도 손에 고기를 들고 신령에게 제사 지내는 것으로 설명된다.¹¹⁾



㉠ '祭' 甲骨



㉡ '祀' 甲骨

㉠ 자형의 왼쪽은 날고기, 오른쪽은 손, 가운데는 날고기의 핏 방울을 나타낸다. 이것은 도살한 제물이 아직 핏방울이 남아있을 때 그것을 제사의 제물로 바쳤던 上古人들의 제사 풍속을 반영한 것이다.¹²⁾ 그래서 段玉裁도 『說文解字注』에서 “상고인들은 새나 짐승을 털도 뽑지 않고, 피도 씻지 않고 먹었기에, 피로서 신에게 보답한 것이다.”라 한 것이다.¹³⁾ 그러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로 신

10) 臧克和外 校訂, 『說文解字新訂』, 北京, 中華書局, 2002. 『說文解字·示』, “祭祀也。從示, 以手持肉。”

11) 穀衍奎, 『漢字源流字典』, 北京, 華夏出版社, 2006, 648쪽. “甲骨文從示(祭臺), 從又(手), 從肉, 會以手持肉置于祭臺上致祭之意。”

12) 左民安, 『細說漢字』, 北京, 九州出版社, 2005, 377-378쪽. “甲骨文的左邊是一塊鮮肉形, 右邊是一隻手, 意思是手拿鮮肉舉行祭祀之禮。其中的四個點兒, 表示鮮肉淋淋之形。”

13) (清)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4, 313쪽. “古者茹毛飲血, 用血報

령에 대한 숭배를 나타냈던 상고인들의 제사문화가 '祭'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㉔ '祀' 갑골 자형 왼쪽은 示, 오른쪽은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 이것은 靈石 앞에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¹⁴⁾ 여기에서의 영석은 보통의 돌이 아닌 신성한 기운이 깃든 돌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돌을 숭배했던 상고인들의 문화사유와 관련이 있다. 자연의 추상적인 대상에 대한 숭배는 돌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상고인들에게 있어 돌은 어떤 대상을 표상하거나 모방한 영적 작용의 도구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示와 관련하여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한다. 그러니까 '祀'는 어떤 신령에게 제사지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설문해자』에서도 祀를 “제사지냄에 끝이 없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하였으니,¹⁵⁾ 이것은 고대 중국의 제사문화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설문해자』가 완성된 東漢 시대는 제사 종류뿐 아니라 횡수가 역대로 가장 많았던 시기였다. 漢代 초기부터 秦代의 제사를 계승하여 이행했을 뿐 아니라 太祝이나 大宰 같은 祠官을 두어 天地四方, 上帝와 山川 등에 대해서도 때에 맞추어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다.¹⁶⁾ 따라서 역대로 가장 많은 신과 귀신을 봉양하였던 漢代 당시의 제사문화가 '祀' 문자 풀이에도 영향을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요컨대 제사는 상고시대로부터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중국 전통문화의 중요한 부분이기, 이에 대한 고대 중국인들의 생각이 '祭'와 '祀'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祭祀의 유래와 대상

祭祀의 本義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제사란 어떤 대상을 숭배하고 경외하는

神。”

14) 左民安, 앞 책, 375쪽. “甲骨文的左邊是‘示(靈石)’, 右邊是跪着的一個人, 表示人跪在靈石前祈禱。”

15) 『說文解字·示』, “祀, 祭無已也。”

16) 왕녕 외 저, 김은희 옮김, 『“설문해자”와 중국고대문화』, 서울, 學古房, 2010, 61쪽. 應劭, 『風俗通·祀典』, “한 무제가 즉위한 후 귀신을 더욱 숭상하여서 이 시기에 흥성했다. 평제 때에는 세상에 육종 및 그 아래의 여러 작은 신들까지 1700여 가지에 이르렀다(武帝尤敬鬼神, 于時盛矣。至平帝時, 天地六宗已下, 及諸小神, 凡千七百所。)”

마음을 구체화 한 것이다. 제사의 목적이나 대상과 행위가 고대 중국 사회의 발전에 따라 다소 달라지긴 하였지만 중국 전통문화에 있어 제사는 줄곧 국가의 大事로서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렇다면 제사행위의 근간이 되는 숭배와 숭배의 대상의 유래는 무엇일까?

이것은 우선 上古시대 원시인류의 文化思維와 관계가 있다. 숭배와 제사행위는 원시인류의 종교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숭배란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숭배의 문화사유는 제사로서 구체화된 것이다. 上古人들의 생활의 터전이며 존속의 바탕이었던 자연은 그들에게 있어 두려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일으키는 대상이었다. 자연 앞에서 나약하고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上古人들은 자연스럽게 그 대상에 대해 상상을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자연에 대한 인간의 원시적 문화사유가 종교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⁷⁾ 다시 말해 생존이나 생활이 자연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인식은 원시인류로 하여금 자연만물에 대한 감사함과 경외,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동시에 유발시켰을 것이고, 이런 생각들은 자연을 초월적 대상으로 인식케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고인들의 인식이 바로 자연만물에 대한 숭배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天地는 만물의 주재자로 숭배되어 오랫동안 제사의 주 대상이 되었다. 천지를 비롯한 자연만물에 대한 숭배는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의 신령에 대한 숭배로 구체화되었는데, 이런 인식은 만물도 인간처럼 靈이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⁸⁾ 인간의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해, 달, 별을 비롯한 하늘의 여러 天象들, 돌과 산, 나무 등을 담고 있는 땅, 그리고 산짐승 날짐승들은 모두 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인간이 이들을 통제할 수 없기에, 이런 자연 현상이나 만물은 신비로운 의지가 통제하는 것이라 여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17) 宋兆麟·黎家芳·杜耀西, 『中國原始社會史』, 北京, 文物出版社, 1983, 460-461쪽. 인류가 존재함과 동시에 종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구석기 중기까지는 종교 신앙을 반영한 유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구석기 중기에 이르러 인류의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의 사유도 발전하게 되면서 인류가 접하게 되는 대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상상할 수 있게 된 것이라 했다.

18) 劉志成, 앞 책, 325-326쪽 참조.

社稷과 山川의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은 모두 백성들에게 큰 공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선대의 聖哲과 덕이 높은 사람들을 제사지내, 정성스런 믿음을 나타냅니다. 하늘의 일월성신 三神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백성들이 그것을 우러러 바라보며 일을 하기 때문이고, 땅위 五行에게 제사지내는 것은 백성들이 이것을 의탁해 생존하고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명산대천에 제사 지내는 것은 그것들이 재물과 器用을 산출해 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이외에는 나라의 제사제도에 낄 것이 없습니다.¹⁹⁾

이것은 고대 중국의 제사문화가 천지를 근본으로 한 자연 신령의 숭배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한 것이다. 숭배와 숭배행위의 문화사유는 결국 인류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자연현상들을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던 상고인들의 생각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것은 어떤 대상에 갖든 신비스런 영혼 즉 신령을 중심으로 이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상고인들은 신령이 그들의 생각을 감지하고 그들의 바람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경건하고 정성스런 마음으로 신령을 숭배하였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낮은 생산력, 그리고 인간의 무능력은 어떤 대상에 의지하여야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이 숭배했던 대상은 여러 천문현상이 나타나는 하늘과 산천초목을 모두 담고 있는 땅이었다.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이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숭배는 더욱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천지는 농업 생산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령 숭배는 고대 중국의 제사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 고대 중국인들은 일을 행하기에 앞서 천지 신령에게 안녕을 기원하고, 행사 도중에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원했으며, 결과 이후에는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제사로 전하였던 것이다.

천지를 중심으로 한 자연현상에 대한 숭배뿐 아니라 상고인들은 인간의 존속과 번성을 위해 生育숭배의 문화 전통이 있었다. 혈족의 존속과 번성을 위해 생육은 필수적인 요건이었기 때문이다. 상고인들의 女陰과 男根 숭배는 바로 생육숭배가

19) 黄永堂 譯注, 『國語全譯』,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5. 『國語·魯語』, “加之以社稷山川之神, 皆有功烈於民者也; 及前哲令德之人, 所以爲明質也; 及天地三辰, 民所以瞻仰也; 及地之五行, 所以生殖也; 及九州名山川澤, 所以出財用也. 非是不在祀典.”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가 모계에서 부계로 발전함에 따라 생육과 관련된 여음 또는 여성 신에 대한 숭배는 남근과 남성 신에 대한 숭배로 전환되었고, 이것은 다시 부족 시조에 대한 숭배, 나아가 조상에 대한 숭배문화로 발전되었다. 이들에 대한 숭배 역시 대상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령에 대한 제사로 구체화되었는데, 여기에는 영혼불멸의 문화사유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고대 중국인들의 문화사유를 살펴볼 수 있다. 殷代 盤庚 이후 11명 왕의 묘로 추정되는 유적들이 安陽 주변 侯家莊 西北岡 부근에서 출토되었는데, 이들 분묘에는 祭器와 악기를 비롯한 일상용기 등의 부장품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殉葬과 희생 제물들이 출토되었다. 이런 부장품과 순장의 형태는 당시 사람들이 영혼불멸을 믿고, 죽은 자들이 산 사람처럼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체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죽은 자들의 신령은 저승에서 현세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 현세에서의 권위도 이들 조상의 신령에 의해 보증되는 것이라 여겼다.²⁰⁾ 바로 이런 인식이 조상에 대한 제사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조상의 신령은 묘안에서 생활할 뿐 아니라 자유롭게 떠돌며 후손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종묘에 모셔두고 제사로 숭배 하였던 것이다. 卜辭에 이미 '宗'이 출현했었다고 하니 종묘는 일찍이 이미 존재하였던 조상 신령의 거처라 할 수 있다.

조상 신령에 대한 제사는 고대 중국사회의 발전에 따라 그 목적과 방식이 달라진다. 최초 조상신에 대한 제사는 혈족의 번성과 평안함에 대한 소망에서 시작되었다. 상고인들은 씨족 선조의 사후에 그 신령이 씨족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 선조의 신령을 위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殷代 종묘에서 이행되었던 조상신에 대한 제사 五祀는 周代의 종묘 제사와 그 성격이 다르다. 종족을 통괄하는 종법제도 하에 이행된 제사인 종묘제사와 달리 殷代 조상신에 대한 제사에는 상고시대 조상 신령에 대한 숭배의 문화사유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²¹⁾

20) 窪德忠·西順藏 엮음, 조성을 옮김, 『중국종교사』,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6, 20쪽 참조.

21) 窪德忠·西順藏 엮음, 조성을 옮김, 위 책, 21-22, 28-30쪽 참조. 殷代 五祀는 先王과 先妣를 위해 널리 체계적으로 제사지낸 것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조상신의 후손을 만족시키고,

무지했던 상고인들의 천지와 자연 신령에 대한 경건한 숭배와 경외심은 농경이 생활의 근간이 된 고대 중국 사회에서 천지에 대한 제사로 체현되었다. 때문에 천지에 대한 제사행위에는 만물을 주재한 대상에 대한 숭배와 함께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는 고대 중국인들의 문화사유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종족의 번성과 평안함을 기원했던 상고인들의 소망은 씨족 선조에 대한 숭배, 그리고 시조와 여러 조상들에 대한 숭배로 이어졌는데, 이것은 원시인류의 영혼불멸 사상과 관계가 있다. 조상이 死後에도 여전히 저승에서 생활하며 후손의 인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은 조상 신령에 대한 숭배와 제사문화의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상 신령에 대한 숭배는 사회발전에 따라 종족을 통괄하는 종법제도에 의해 근대에 이르기까지 제사행위로 지속되었다. 천지자연과 조상 신령을 중심으로 한 고대 중국의 제사문화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통치자들에 의한 교화의 수단과 통치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제사행위는 상고시대로부터 봉건사회에 이르기까지 天地人을 중심으로 이행되었기에 “천지는 생명의 근본이요, 조상은 인류의 근본이다.”라고 한 것이고,²²⁾ 이와 같은 당시 사람들의 문화사유는 그것들을 상징하는 漢字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示’에 반영된 고대 중국인의 文化思維

한자 구성에 있어 부수 부분은 일반적으로 글자의 뜻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示 부수 한자 연구에 앞서 ‘示’를 분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說文解字』에서 示는

하늘이 象을 내려 사람들에게 吉凶을 보여주는 것이다. (길흉을 보여) 사람들에게 제시하려는 것이다. 二로 구성되어 있다. 三 즉 세 줄은 示, 달, 별이다. (이로써) 천문을 관찰하고 시간의 변화를 살피는 것이다. 示

왕 중심으로 은대 사람들의 화목과 단결을 꾀하는데 이바지 했다고 한다. 周代 종묘제사는 은대 조상신 제사를 계승하였다가 건국의 始祖廟와 四親廟(가까운 4대 부계조상)를 중심으로 이행되었으며, 四時로 구분하여 時祭 형식으로 이행되었다고 한다.

22) 『史記·禮書』, “天地者, 生之本也; 先祖者, 類之本也。”

는 神事를 나타낸다. 示에 속한 글자들은 모두 示의 뜻에 따른다.

라고 하였다.²³⁾ 示 자형 윗부분을 '從二'라 하였으니, 이것은 위쪽 즉 하늘을 나타내는 것이다.²⁴⁾ 세로로 내린 세 줄 '三'은 해, 달, 별을 나타내는 것이니, 이로부터 천문을 관찰해 시간변화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하늘이 해, 달, 별과 같은 천문현상의 변화로 앞으로의 길흉을 인간에게 징조로 보여준다는 것이니, 許慎이 풀이한 示는 하늘의 어떤 주재자가 암암리에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함을 설명한 것이라 하겠다.

示에 대한 허신의 설명은 그 本義와는 차이가 있다.



①-1은 제단의 형상,²⁵⁾ ①-2는 두 개의 돌로 간단하게 세워진 제단 모양으로, 농촌에서 볼 수 있는 제사상 혹은 향을 피워놓은 단상과 유사한 모양이라 하였다.²⁶⁾ 때문에 甲骨文 示는 上古人들이 祭品을 바쳤던 靈石이라 할 수 있다. ①-1의 갑골문도 제단의 모양으로 보아, 그 본의를 영석으로 풀이하였다. 상고인들에게 있어 제사 물품을 올려놓았던 신령스러운 돌 영석은 복과 재앙의 징조를 내릴 수 있는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示의 본의는 영석이라 한 것이다. 신령스러운 돌을 상징하는 영석은 上古시대 인류에게 있어 만물의 靈이 의탁할 만한 사물이었

23) 『說文解字·示部』, “天垂象, 見吉凶, 所以示人也。從二。三垂, 日月星也。觀乎天文, 以察時變。示, 神事也。凡示之屬皆從示。”
 24) 염정삼, 『설문해자주부수지역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21쪽. 고문에서는 “‘上’을 ‘二’로 쓴다. 그러므로 帝, 旁, 示 글자에서 모두 上의 고문자형으로 구성되었다(古文上作二, 故帝下旁下示下皆云, 從古文上.)”라고 했다.
 25)李建國, 앞 논문, 321쪽. 牟作武의 『中國古文字的起源』을 바탕으로 示의 甲骨文과 篆文의 자형은 제단의 형상을 나타내므로, 그 본의가 영석이라 설명했다.
 26) 穀衍奎, 앞 책, 97쪽. “甲骨文像用兩塊石頭搭起的簡單祭臺形, 猶如現今農村的供桌或香臺子。”

기에 이것을 숭배하며 자신들의 바램을 기도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靈이 깃든 돌이나 巨石에 대한 숭배는 중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상고인들에게 돌은 어떤 것을 상징하거나 모방 혹은 어떤 곳에서 유래하였기에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모든 경우에서 돌은 그것이 구현하고 표현하는 자체를 넘어선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고인들은 돌이 자신과는 다른 어떤 것을 상징하는 한에 있어서만 돌을 숭배하며 영적 작용의 도구, 또는 그들 자신이나 죽은 자를 방어해주는 중심으로 돌을 숭배하거나 이용한 것이다.²⁷⁾ 중국을 포함해 다른 지역에 거주했던 상고인들도 단단하고 거대한 모습으로 강함을 드러내는 돌을 숭배하는 동시에 그것으로 위엄을 드러내기도 하였고, 죽은 자의 영혼이 배회하는 것을 막는 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만물에 靈이 깃들어 있다고 여겼던 상고인의 문화사유와 관계가 있다.

교외에서 발견된 돌 무리 같은 것은 상고시대 돌 숭배와 관계된 유적이라 할 수 있다. 돌 무리들은 宗廟郊祀祭가 시행된 이후 神主로서 묘당 안으로 옮겨졌다고 한다.²⁸⁾ 돌로 된 신주는 다시 나무로 만든 신주로 바뀌어 제사지내졌는데, 周代の 나무로 된 신주에 대해 『春秋公羊傳』에서는 “사각 기둥 모양인데, 가운데 구멍을 뚫어 사방으로 통하게 하였다. 신주의 길이는 천자는 1자 2치, 제후는 1자이다.”라고 하였다.²⁹⁾ 요컨대 示는 돌을 숭배했던 상고인들의 문화사유가 반영된 신주의 상징부호라 할 수 있다. 示의 고문자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살펴본 신주 모습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에서는 영석의 아래 부분에 점이 더해져 간단한 ‘小’의 형태의 받침대 모양으로 변하였다가,³⁰⁾ ㉡에서는 현재의 ‘示’ 형태와 유사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小篆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示字形에서는 이미 그 본의를 살펴볼 수가 없으며, 위『설문해자』의 풀이 역시 示의 본의와는 차이가 있다.

27)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은봉 옮김, 『종교형태론』, 파주, 한길사, 2002, 297-298쪽.

28) 雷漢卿, 앞 논문, 67쪽. “及至宗廟郊祀祭制度興起, 神主從郊野移至廟堂華屋。”

29) (漢)何休, 『春秋公羊傳何氏解詁(四部備要)』, 臺北, 中華書局, 1970. 「卷十三 文公」, “主狀正方, 穿中央, 達四方, 天子長尺二寸, 諸侯長一尺。”

30) 左安民, 앞 책, 374쪽. “甲骨文很像我國上古人所崇拜的‘靈石’, 在這個‘靈石’臺上可以貢獻祭品。金文……‘靈石’的底座簡化為‘小’字形的支架了。”

자연만물에 靈이 깃들어 있다 믿었던 상고인들에게 돌은 그들이 의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물이었기에 그것을 신주로 삼아 숭배하였다. 갑골문 자형에서 살펴 볼 수 있는 제물로 드릴 물품을 올려놓는 돌 탁자 형태는 바로 신주의 추상적 형태라 할 수 있다. 示는 이후 天神과 地神 혹은 先公先王之 통칭으로 사용되었는데,³¹⁾ 이것은 신주가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示를 곧 신주라 한 것이다. 『설문해자』에서는 示를 천문의 변화의 관찰을 통해 하늘과 천문현상을 나타내는 '二'와 '三'으로 풀이하며, 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것이 '示'라 하였다. 다시 말해 허신은 신의 일을 보여주는 일인 '神事'를 示라 설명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어떤 신령이 재앙과 복을 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상고인들의 신령 숭배의 문화사유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석을 나타낸 示는 바로 신령을 대표하는 상징부호로서, 示는 곧 신주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引申되어 神을 가리키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³²⁾

3. '神' '祇' '社' '祖'와 고대 중국의 祭祀文化

1) '神' '祇'와 天地 神靈에 대한 祭祀

(1) 만물의 주재자 天神 '神'

上古人들은 자연의 힘과 변화에 두려움과 경외의 마음이 있었고, 이런 인식은 어떤 대상에 대한 숭배로 이어졌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현상은 어떤 신비로운 의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신비로운 의지를 지닌 자연현상의 대표가 하늘과 땅이다. 종교적 의미를 떠나 생각하더라도 상고인들에게 있어 하늘은 바라보는 것만으로 종교적 체험을 하기에 충분한 대상이었다. 하늘은 모습 자체로 무한함과 초월을 나타내며, 멀리 떨어져 있기에 신비로울 수 밖에 없는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도달할 수 없는 至高無上의 영역은 곧 神의 속성

31) 雷漢卿, 앞 논문, 68쪽. “在卜辭中, '示'爲天神, 地及先公先王之通稱, 爲神主專用字。”

32) 劉志成, 앞 책, 335쪽. “示, 卽神主之形, 本是代表祖先的靈牌, 引申指神。”

이기도 하므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절대적 위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³³⁾ 하늘에 대한 이와 같은 보편적인 문화사유는 고대 중국인의 제사문화에도 반영되었다.

‘神’은 『說文解字』에서 “天神으로, 만물을 이끌어내는 자이다. 示는 뜻을 나타내며, 申은 소리를 나타낸다.”³⁴⁾라고 하였다. 徐鍇는 이에 대해 『說文系傳』에서 “神은 天主가 氣를 내려 만물을 감응시킨 것이므로, 만물을 이끌어내는 자를 神이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³⁵⁾ 天神을 至高의 신으로 숭배했던 상고인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늘을 사람의 제일 높은 부분인 머리 꼭대기처럼 끝을 알 수 없는 至高의 위치에 있는 어떤 존재라 여겼기 때문이다.³⁶⁾ 하늘은 해와 비, 바람 등을 통해 만물을 조화롭게도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 세상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신령, 즉 천신을 상상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고인들의 이런 상상이 하늘에 속한 천문현상과 변화 등을 신격화하여 그것들에 대한 제사행위로서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神의 자형 구성 중 ‘申’에는 바로 이와 같은 문화사유가 반영되어 있다. 申은 고문자에서 ‘電’과 같은 글자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 ‘申’ 甲骨



㉡ ‘申’ 小篆

㉠은 번개가 번쩍이며 흩어지는 모습이고, ㉡은 번쩍이는 번개가 곧은 형태로 당겨지는 모습을 나타낸다.³⁷⁾ 卜辭에서 申은 電과 같은 글자로는 쓰였지만, 神과는 같이 쓰이지 않았다고 한다.³⁸⁾ 따라서 神은 申에서 파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3)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은봉 옮김, 앞 책, 95쪽 참조.

34) 『說文解字·示』, “天神引出萬物者也。從示, 申聲。”

35) 單曉琳, 「《說文解字》“示”部字看上古的自然崇拜」, 『西南科技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26卷, 2009, 54쪽 재인용. 徐鍇, 『說文系傳』, “天主降氣以感萬物, 故言引出萬物。”

36) 『說文解字·一』, “天은 꼭대기이다. 끝없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天, 顛也. 至高無上.)”

37) 穀衍奎, 앞 책, 116쪽. “甲骨文, 金文皆像閃電舒張形, 篆文將閃電拉直。”

申의 本義가 번개 치는 모습이니, 神 역시 번개 치는 모습과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상고인들은 번개와 같은 천문현상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격화하여 신령으로 숭배한 것이며, 이와 같은 번개 신에 대한 외경심은 申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늘과 천문현상은 인간생활에 필요한 생산과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天神에 대한 숭배와 제사문화는 농경사회로 발전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천신을 비롯한 태양신, 구름신, 바람과 비신, 그리고 번개 신 등이 나와 있는 卜辭 占文 내용을 통해서도 고대 중국인들의 제사문화를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³⁹⁾

모든 천문현상은 하늘에 속해있기에 각각의 신령으로 숭배된 것이고, 번개는 이들 천문현상의 변화로 일어나는 어떤 징조이기에, 이것을 곧 하늘 신의 계시라 여겼던 것이다.⁴⁰⁾ 때문에 번개를 나타내는 '申'은 곧 천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기에 제사의 대상이 되어 오랫동안 숭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의가 번개 치는 모습인 申에 示가 더해져 神이 된 것은 하늘의 신령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천문현상으로 징조를 나타내는 신을 상징하는 '示' 역시 하늘의 신령인 천신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은 또 신주 혹은 신주에 대한 제사를 나타낸 것이기도 하므로, 申에 示가 더해진 神은 만물을 주재하는 존재, 즉 하늘의 신령이 더욱 구체화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神'에는 상고시대부터 제사의 주 대상으로 숭배되었던 하늘 신령에 대한 고대 중국인의 문화사유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38) 胡靜, 「文化學視覺下的“示”部字與鬼神思想」, 『安徽文學』 第11期, 2009, 273쪽.

39) 窪德忠·西順藏 譯, 趙成을 옮김, 앞 책, 24쪽. 상고시대 천신에 대한 숭배는 부계사회에 이르러 일월성신을 통괄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이것은 '帝'로 나타났다. 帝는 殷代 祈年祭의 중요 대상인 上帝로, 이것은 인간세상의 최고 권력자인 王에 대비되는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지고의 신을 의미한다. 帝는 천계의 바람, 구름, 비, 해, 달 등의 존재에게 명령을 내리는 자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것은 때에 따라 天이나 皇天으로 칭해지기도 했다.

40)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은봉 옮김, 앞 책, 96-97쪽 참조. 천공의 완전성은 무진장한 聖顯(존재의 드러남)이다. 그래서 성좌 공간, 대기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즉 밀려오는 구름, 폭풍, 번개, 유성, 무지개 등은 동일한 성현의 한 계기로 인식한 것이다.

(2) 만물의 주재자 地神 '祇'와 天地間의 조화

고대 중국인들은 天神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재하고, 地神은 땅 위 모든 생명들을 담아 지탱할 수 있게 해준다고 여겼다. 그래서 땅 신을 대표하는 '祇'를 『說文解字』에서 “땅의 신으로, 만물을 드러내는 자이다.”라고 한 것이다.⁴¹⁾ 許慎의 설명에 따르면 만물을 드러내는 존재 祇는 만물을 이끌어내는 존재 神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존재하는 위치를 대표하여 하늘과 땅으로 지칭될 뿐 이들의 특징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上古人들의 天地에 대한 생각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천문현상 전체를 주재하며 만물을 이끌어내는 존재 하늘뿐 아니라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탄생시켜 먹여 살리는 만물의 어머니 땅을 상고인들은 숭배하였기 때문이다. 농경이나 생산과 관련된 측면에서 생명과 풍요의 땅으로 숭배되기 이전부터 상고인들에게 있어 땅은 그 자체로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땅에 대한 상고인들의 최초의 직관이 '넘쳐흐르는 성스러운 힘의 容器로서의 우주'라고 하였다. 땅의 광대함과 견고함, 그 풍경과 식물의 다양함은 살아 있는 활동적인 우주적 통일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땅은 그 자체를 비롯한 돌, 나무, 물, 등 자연 환경에서 구현되는 모든 聖顯(hierophany)을 모두 하나의 전체 가운데 넣어버리기 때문이다.⁴²⁾ 하늘이 모든 천문현상을 담고 있어 그것으로 그 존재의 힘을 드러내며 세상 만물을 이끌어내듯이, 땅 역시 만물 자체가 그것으로부터 나와 세상에 수용되었다가 되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존재로 인식하였기에 상고인들은 땅을 하늘과 함께 또 하나의 만물의 주재자로 병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땅 신 祇에게 예를 다하고, 하늘 신 神에게 정성을 다해 참배했다.⁴³⁾

위아래의 하늘과 땅 신 神祇에게 기원했다.⁴⁴⁾

41) 『說文解字·示』, “地祇, 提出萬物者也。”

42)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은봉 옮김, 앞 책, 327쪽 참조.

43) 『史記·司馬相如列傳』, “修禮地祇, 謁款天神。”

44) 李學勤 主編, 『論語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論語·述而』, “禱爾于上下神祇。”

이처럼 하늘과 땅의 신령에 대한 숭배로부터 행해진 제사행위에는 고대 중국인의 문화사유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고인들은 비, 바람, 번개 같은 하늘의 주술적 힘으로 인해 땅의 모든 만물이 성장되는 것이라 여겨 천지의 힘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원시의 문화사유는 천지 신령에 대한 숭배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禮記·郊特牲』에서 “땅은 만물을 싣고, 하늘은象을 드리운다. 땅에서 재물을 얻고, 하늘에서 가르침을 얻는다. 이런 까닭으로 하늘을 존중하고 땅을 친하게 여기는 것이다.”라 한 것은 세상 만물의 근원이 천지라는 고대 중국인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⁵⁾ 천신이든 지신이든 이것들은 모두 인류의 생명과 존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 신령에 대한 숭배는 상고시대부터 제사행위로 구현되었다. 다시 말해 모든 천문현상을 주관하는 하늘과 만물을 포용하고 있는 땅은 세상만물의 주재하는 신령으로 숭배되어 지속적으로 제사의 주요 대상이 된 것이고, 고대 중국인의 이와 같은 문화사유가 ‘神’과 ‘祗’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社’와 土地 神靈에 대한 祭祀

(1) 土地神 ‘社’에 대한 祭祀

땅 신과 비슷한 속성을 지닌 것이 土地神이다. 모두 땅의 속성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祗’가 만물을 주재하는 땅 신이라면 ‘社’는 땅의 속성에 따른 신령의 힘이 구체화되어 사람들의 생활에 좀 더 가깝게 영향을 주는 토지 신이라 할 수 있다.

‘社’는 『說文解字』에서 “땅의 주인을 뜻한다. 示와 土는 뜻을 나타낸다.”라고 하였다.⁴⁶⁾ ‘地主’란 땅을 총괄할 수 있는 존재를 뜻하므로, 社는 곧 땅을 주관하는 신이라 할 수 있다. 『春秋傳』에서 “共工의 아들 句龍이 社神이다.”라 하였는데,⁴⁷⁾ 구룡은 后土를 나타내므로,⁴⁸⁾ 社神이란 토지 신을 말한다. 그런데 고대 중국에서

45) 『禮記·郊特牲』, “地載萬物, 天垂象取材于地, 取法于天, 是以尊天而親地也。”

46) 『說文解字·示』, “社者, 地主也。從示, 土。”

47) 臧克和 外 校訂, 『說文解字新訂』, 9쪽 재인용. “『春秋傳』曰: ‘共工之子句龍爲社神.’”

社は 토지 신 이외에도 '토지 신에 드리는 제사' 혹은 '토지 신을 모신 곳'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甲骨文에서 社는 '土'와 같은 글자로서, 그 本義 역시 토지 신으로 풀이된다.



‘土’ 甲骨



‘社’ 金文

社の 本字인 土는 甲骨 字形에서 땅 위로 봉긋하게 솟아오른 흙덩어리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이것은 토지 신에 대한 제사의 가장 원시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므로,⁴⁹⁾ 社は 토지 신에 대한 제사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종교적 측면에서 볼 때 만물 생장의 주체인 땅 土에 示를 더해 社라 한 것은 자신들의 근본에 감사하며 天地에 보답하고자 하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⁵⁰⁾ 『白虎通·社稷』에서 “흙을 쌓아 社를 세웠다. 그래서 社は 土에 示가 더해진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라 하였다.⁵¹⁾ 땅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삶의 터전이며 존속의 바탕이므로 땅과 곡식이 없다면 인간생활은 유지될 수가 없다. 땅과 농작물을 주관하는 토지 신에 대한 제사로 숭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땅은 너무 광활하여 그 끝을 알 수가 없었다.⁵²⁾ 때문에 상고인들은 어느 한 곳에 흙을 쌓아올려 聖地로 표시하였고, 이런 당시 사람들의 문화사유는 ‘社’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社は 五土의 신이다. …… 句龍은 水土의 공으로 社를 배분받아, 그를

- 48) 李學勤 主編, 『禮記正義』, 791쪽 재인용. 『孝經』注云: “‘句龍爲后土。’鄭既云‘社, 后土。’則句龍也。”
- 49) 谷衍奎, 앞 책, 18쪽. “甲骨文像地上有土塊形, 當是最原始的祭社形象, 是社(土地神)的本字。”
- 50) 雷漢卿, 「釋社」, 『古漢語研究』第3期, 1995, 61쪽. “將生養萬物之土尊稱爲‘社’充滿着報本反始的宗教感情。”
- 51) (清)陳立 撰, 『白虎通疏證』, 北京, 中華書局, 2007. 『白虎通·社稷』, “封土立社, 示有土也。”
- 52) 『白虎通·社稷』, “人非土不立, 非穀不食, 土地廣博, 不可偏敬也。”

社神으로 모셔 제사지내게 되었다.⁵³⁾

殷代 祈年祭 중에는 토지 신에 대한 제사도 있었는데, 그것은 성지에 신이 의탁할 수 있는 흙을 쌓아 거기에 여러 신을 맞이하는 의식으로 행해졌다고 한다. 이때 토지 신은 어떤 부족을 대표하는 이름이나 부족 시조신을 대표한 것이기도 하였다.⁵⁴⁾ 때문에 공을 세운 공공씨 아들을 社神이라 한 것이니, 여기에는 고대 중국인의 토지 신 숭배의 문화사유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토지에 대한 제사 社에는 농경의 원리가 반영되었다. 농사를 지을 때는 해, 바람과 비 등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연 현상들을 모두 수용해야 하므로, 최초의 社는 하늘이 드러난 곳에 이것의 표시로서 봉긋한 흙덩어리를 쌓아올리거나 흙으로 나지막한 壇을 쌓아 놓았을 뿐이었다.

천자의 大社는 건물이 없고 반드시 서리와 이슬과 바람과 비를 있는 그대로 받게 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氣를 있는 그대로 골고루 받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망국의 社에는 일부러 社屋을 지어 하늘의 陽氣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薄社는 북쪽으로 문을 내어, 양기를 차단하고 陰氣만을 통하도록 하여 생명의 기를 죽게 했다.⁵⁵⁾

周代에는 피정복족의 社나 망국의 社에도 제사를 지냈으므로 나라는 망하였으나 社는 남아 있었다. 하지만 周나라는 殷나라를 정복한 후 그들의 社인 薄社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社에 건물을 지어 지붕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결국 社는 혈족을 대표하는 부족 시조, 다시 말해 그들의 토지 신과 그것에 대한 제사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社는 社稷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社는 토지 신 혹은 토지 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이고, 稷은 곡식 신 또는 곡식 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이다. 周代는 농업을 나라

53) 李學勤 主編, 『禮記正義』, 790쪽 재인용. “『正義』曰: 社五土之神 …… 句龍以有平水土之功, 配社祀之.”, “后土, 土官之名, 故世人謂社為后土。”

54) 窪德忠·西順藏 譯, 『禮記正義』, 23-24쪽 참조.

55) 『禮記·郊特牲』, “天子大社, 必受霜露風雨, 以達天地之氣也。是故喪國之社屋之, 不受天陽也; 薄社北牖, 使陰明也。”

의 기반으로 한 봉건국가였기 때문에 농경과 관련된 사직은 곧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사직은 봉건의 증명이며 국가의 중요 제사로서 제후들은 사직에 대한 제사를 드린 후 자신들 종족의 社에 제사를 지냈다.⁵⁶⁾ 周나라 시조 后稷은 社神으로 섬겨졌던 후토와 함께 제사의 대상이 되었으니, 여기에는 사직에 대한 제사를 중시 여겼던 당시 중국인들의 문화사유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대 중국인들의 토지 신에 대한 숭배는 농경중심의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토지와 곡식의 신령에 대한 제사행위로 구체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社는 처음 토총이나 壇의 모습에 불과하였지만, 이것은 神主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周代에는 토지 신령을 상징하는 신주를 나무로 묶은 형태의 신상으로 만들어 社에 두고, 그것에 대한 제사를 드렸을 뿐 아니라, 이후 社에 신주의 표시로 나무를 심기 시작하였다.

25家が 함께 社에 제사를 지냈는데, 나무는 그 땅에 알맞은 것으로 심었다.⁵⁷⁾

사직의 土壇을 설치하고, 제각기 그 마을의 토질에 맞는 좋은 나무를 선택해서 심고, 그 나무의 이름에 따라 그 社와 그 마을의 이름을 붙였다.⁵⁸⁾

이렇게 심은 나무를 '社樹'라 하였다. 이 나무들은 그 곳의 토질에 맞는 좋은 나무를 선택해서 심었으며, 심어있는 나무의 이름에 따라 社의 이름도 같이 불려, 뽕나무를 심었으면 桑社라 불렀고, 소나무를 심었으면 松社라 불렀다. 또 夏代에는 소나무를, 殷代에는 잣나무를, 周代에는 밤나무를 社樹로 심어 社를 상징하는 나무로 삼아 심기도 하였다.⁵⁹⁾

土와 示의 합성자인 '社'는 토지 신을 상징하는 동시에 토지 신에 대한 제사를

56) 窪德忠·西順藏 엮음, 조성을 옮김, 앞 책, 32쪽 참조.

57) 臧克和外校訂, 『說文解字新訂』, 9쪽 재인용. "『周禮』: 二十五家爲社, 各樹其土所宜之木."

58) 林尹 注譯, 『周禮今注今譯』,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85. 『周禮·地官司徒』, "設其社稷之壇而樹之田主, 各以其野之所宜木, 遂以名其社與其野."

59) 『論語·八佾』, "哀公問社于宰我. 宰我對曰: 夏后氏以松, 殷人以柏, 周人以栗."

나타낸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社樹를 심어 토지 신이 있는 것을 표시하기도 하였지만, 최초의 社는 단지 이것을 표시할 수 있는 흙덩어리를 쌓아올려 놓았을 뿐이다. 나지막한 흙덩이나 壇의 모습은 '土'의 고문자와 형태가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제사는 곧 토지 신에 대한 제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활한 대지 중 생산물을 주관하는 신령 즉 토지 신에 대한 제사는 土에 示를 더해 社로 나타난 것이므로, 여기에는 생산물에 대한 감사와 풍요를 기원하고자 했던 고대 중국인들의 문화사유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春社, 秋社와 高禰神에 대한 祭祀

나라와 개인 모두에게 땅의 존재는 절대적인 것이었으므로, 토지 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각별하였다. 이 제사 때에는 집집마다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독려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사에서 사용할 동물의 사냥에도 온 나라 사람이 다 같이 참여하도록 하였고, 축제에 쓰일 곡식도 경작지로부터 직접 실어다 내어놓게 하였으니,⁶⁰⁾ 제사의 규모와 그 성대함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나라에서는 社에 대한 제사를 통해 땅의 은혜에 정성스럽게 보답하도록 백성을 가르쳤던 것이니, 여기에는 농경사회 이후 토지를 자신들의 존재와 생활 유지의 근원이라 여겼던 당시 사람들의 문화사유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社에 대한 제사는 주로 봄과 가을을 중심으로 거행되었다. 仲春이 되면, 사람들은 社에 모여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春社이다. 가을 추수를 마칠 때쯤이면 사람들은 다시 社에 모여 토지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고, 이것을 秋社라 하였다. 그러니까 춘사와 추사는 토지 신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농작물의 풍요를 기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社는 高禰에 대한 제사의 별칭이기도 하였다. 고매는 원래 상고시대에 혼인과 생육을 주관하던 땅 신이었으므로, 고매에 대한 제사는 인구 번성과 관계가 있다

60) 『禮記·郊特牲』, “오직 社에 대한 제사를 위해서는 나라 사람들이 모두 나와 참여하여야 하고, 제사를 위해 사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이고, 제사에 바칠 기장과 피도 풍성하게 드러야 한다. 이것은 근본에 보답하고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까닭이다(唯爲社事, 單出里; 唯爲社田, 國人畢作; 唯社, 丘乘供粢盛, 所以報本反始也.)”

고 할 수 있다. 고대 중국인들은 자연 질서와 인간생활을 연계해 생각했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주관해주는 토지 신은 인간 번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다 보니社를 자연스럽게 고매신에 대한 제사로 칭하게 된 것이다. 춘사에 관한 기록 중에는 천자가 궁중의 여자권속들을 이끌고 나와서 의식에 참여하였다는 내용도 있다.

이 달(중춘의 달)에 제비가 돌아왔다. 제비가 돌아오는 날에는 고매의 사당에서 소와 양과 돼지의 세 가지 존귀한 희생을 바치는 의식을 행했는데, (이 때에는) 천자가 친히 참가했다. 后妃도 九嬪들을 거느리고 왔는데, 이때 천자는 임신한 궁중 권속들을 위하여 예를 올리고, 고매 앞에서 그들에게 활의 전대를 채워주고 화살을 나누어주며 아들 낳기를 기원했다.⁶¹⁾

천자는 이 제사를 통하여 궁중의 妃嬪 특히 임신한 비빈을 위한 의식도 같이 행하였다. 활 쏘는 일은 남자의 일이다. 따라서 임신한 여성들에게 활 전대와 화살을 나누어주는 것은 씩씩한 아들 생산을 기원하는 의미였다. 그러므로 농사의 풍요와 더불어 좋은 아들접지를 빌기 위한 고매에 대한 제사는 곧 후손 번성과 나아가 사직을 공고히 하고자 했던 고대 중국의 문화사유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祖'와 祖上 神靈에 대한 祭祀

할아버지 또는 조상을 뜻하는 '祖'의 원래 글자는 '且'였다. 男根을 나타낸 '且'나 제사 때 희생물을 올려놓던 도마를 뜻하는 '俎', 그리고 '祖'는 근원이 같기 때문이다.⁶²⁾ 그렇다면 祖는 이들 글자와 어떤 관계가 있어, 그 뿌리가 같은 것일까? 여기에는 上古人들의 生育숭배와 영혼불멸 사상,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된 조상신 숭배의 문화사유가 반영된 까닭이라 할 수 있다.

61) 『禮記·月令』, “是月也, 玄鳥至。至之日, 以太牢祠于高禩, 天子親往。后妃帥九嬪御, 乃禮天子所御, 帶以弓鞶, 授以弓矢, 于高禩之前。”

62) 穀衍奎, 앞 책, 114쪽, “且與俎, 祖同源。……‘祖’‘祖’의 初文。”



甲骨文 且의 字形이 수컷 생식기를 나타낸 것이라는 의견은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⁶³⁾ 이것은 上古人들의 생육숭배에 대한 인식의 반영으로, 부계사회 이후에는 숭배의 중심이 남근으로 구체화되었다.⁶⁴⁾

『甲骨文字典』에서 徐中舒는 且는 원래 고기를 잘라 놓았던 깔개 같은 것이었다가 자른 고기를 담아둔 禮器로 변화된 것이라 하였으니,⁶⁵⁾ 祖는 且에 示가 더해져引申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증서의 이와 같은 설명은 상고인들의 제사문화와 관계가 있다. 『說文解字』와 古文字 풀이에서 '祭'는 손에 고기를 들고 있는 모습 또는 고기를 들고 제사지내는 모습이라 하였고, 示 옆에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 '祀'로, 이것은 靈石 앞에 한 사람이 꿇어 앉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또 고기를 올려놓던 받침대는 곧 희생물을 올려놓던 도마 썰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 할 수 있으니, 且의 자형을 다르게 분석해 설명하더라도 祖(且)에는 상고인들의 제사문화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且가 남근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곧 후손을 번성하기를 기원했던 상고인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고, 자른 고기를 올려놓는 받침대라 한다면 이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숭배를 제사행위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계사회 이후의 남근 숭배는 남성 시조에 대한 숭배로 변화되었다가, 다시 부족 시조에 대한 숭배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상고인들의 영혼불멸 사상과 관계가 있다. 상고인들은 영혼이 사람의 육체와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겨, 사람의 死後에도 육체만 죽은 것일 뿐 영혼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살아있는 사람들

63) 이인경, 「漢字에 투사된 고대 중국인의 生育崇拜 문화」, 『중국어연구』 77집, 2016, 17-21쪽 참조. 郭沫若이 且의 갑골문 자형을 수컷생식기(牡器)를 형상화 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한 이래, 많은 학자들이 이에 동참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64) 穀衍奎, 앞 책, 114쪽. “甲骨文像雄性生殖器形, 是初民生殖崇拜的體現。”

65) 徐中舒 主編, 『甲骨文字典』,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2016. “諸形均象盛肉之俎. ……用作切肉之薦. ……由切肉之器逐漸演變爲祭神時載肉之禮器.”

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⁶⁶⁾ 결국 조상 숭배는 사후에도 영혼은 존재한다는 인식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미 죽은 부족 시조에 대한 제사, 다시 말해 시조 신령에 대한 제사가 점차 직계 조상 신령에 대한 제사로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祖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나타낸다. 어떤 대상에 대한 제사를 위해서는 마땅한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祖는 바로 조상신에 대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聖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해자』에서 “祖는 始廟이다. 示와 且는 뜻을 나타낸다.”라 하였다.⁶⁷⁾ 이것은 祖의 자형을 선조의 神主 모습으로 설명한 것과 관계가 있다.⁶⁸⁾ 중국 민간에는 아직도 선조의 위패를 봉양하는 풍속이 남아있는데, 제사를 위한 제단 위에 올려놓은 나무로 만든 위패가 且의 고문자 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⁶⁹⁾ 劉志成은 神主 모양의 示는 원래 조상을 대표하는 靈牌였다고 하였고,⁷⁰⁾ 雷漢卿은 상고시대 유물을 근거로 하여 조상 신령이 깃들어있는 신주가 祖의 本義라 하였다.⁷¹⁾ 다시 말해 祖는 사람들이 죽은 선조들에 대해 제사를 위해 만들어 놓은 신주위패라 할 수 있으니, 위패를 모셔놓은 ‘始廟’로 설명한 許慎의 풀이와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상의 위패를 모셔 놓은 장소 祖에 반영된 문화사유는 宗廟의 ‘宗’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宗의 갑골 자형 𠄎은 집에 제단이 있는 모습으로,⁷²⁾ 『설문해자』에서는 宗을 “숭상하다의 뜻이다. 祖廟이다.”라고 하였다.⁷³⁾ 그러니까 宗이란 선조들의 신주를 모셔두고 제사를 지내던 방을 말하는 것이다. ‘宗’은 殷代 卜辭에 이미

66) 劉志成, 앞 책, 334쪽 참조.

67) 『說文解字·示部』, “祖, 始廟也。從示從且。”

68) 劉志成, 앞 책, 197쪽. 고대 제사의식에 사용되었던 도마와 비슷한 祭器, 혹은 나무를 깎아 만든 神主位牌로 보기도 한다.

69) 李琢·李萍, 「《說文解字》“示部”反映的祭祀文化」, 『廣西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0卷, 2008. 322쪽. “在供桌上放置一塊木牌, …… 這木牌與‘且’字的古文形體相似。”

70) 劉志成, 앞 책, 335쪽. “示, 卽神主之形, 本是代表祖先的靈牌, 引申指神。”

71) 雷漢卿, 『《說文》“示部”字所反映的古代宗教文化釋證』, 71쪽. 고고학적 유물 중 陶罐이나 陶罐 甬상과 祖 형태에 대한 詹鄞鑫의 의견을 참고하여 祖의 본의를 설명했다. “祖的本義應是祖先神靈所依附的神主。”

72) 穀衍奎, 앞 책, 399쪽. “甲骨文從宀(房), 從示(祭壇), 表示立神主以祭的房子。”

73) 『說文解字·宀部』, “宗, 尊也。祖廟也。”

등장하였다. 殷代에는 조상 신령에 대한 제사를 자주 드렸는데 그 중에는 宗廟에서 행해지는 제사도 있었다고 한다.⁷⁴⁾ 『墨子·明鬼』에서는

옛날 夏, 商, 周의 임금들은 처음에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만들 때 반드시 나라의 반듯한 壇을 골라 거기에 종묘를 세웠다.

라 하였고,⁷⁵⁾ 『禮記·祭義』에서도

나라의 神位를 세울 때에는 오른쪽에는 사직, 왼쪽에는 종묘를 두었다.

고 하였으니,⁷⁶⁾ 고대 중국에서 종묘는 社稷과 더불어 천하를 상징하는 하나의 표시였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조상 위패를 모셔놓은 종묘에는 조상 신령의 은혜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이행하였던 고대 중국인의 제사문화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문화사유가 祖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상 신령에 대한 제사를 종묘처럼 어떤 거처를 중심으로 지냈는데, 이와 같은 제사문화가 조상의 위패 또는 그것을 모셔놓은 곳을 나타내는 祖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형이 남근 형태이든 신주위패 형태이든 '且'에는 상고인들의 생육을 통한 자손 번성에 대한 염원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신들 혈족의 조상이 사후에도 후손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겼던 영혼불멸 사상으로 인해 고대 중국인들은 조상의 신령을 숭배하였기 때문이다. 조상의 영혼 자체를 숭배하고자 하나 그것은 무형의 존재이다 보니, 상고인들은 조상 신령을 상징할 어떤 것, 혹은 조상 신령이 거주할만한 집을 만들어 유형화하였던 것이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도 조상 신령을 모셔두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西雙版納 傣族의 小室이나 彝族

74) 窪德忠·西順藏 엮음, 宗성을 옮김, 앞 책, 21쪽. 종묘에서 드리는 조상제를 五祀라 하였다. 이것은 先王 세대 순서와 10干的 날짜 순서에 따라 이행되었고, 선왕과 先妣에 대한 제사는 왕들 제사에 열흘씩 물려서 행해졌다.

75) 方勇 譯注, 『墨子』, 北京, 中華書局, 2015. 『墨子·明鬼』, “昔者虞夏商周, 三代之聖王, 其始建國營都日, 必擇國之正壇, 置以爲宗廟。”

76) 『禮記·祭義』, “建國之神位, 右社稷而左宗廟。”

의 산 위 바위 동굴은 조상 신령이 그 장소에 깃들게 하거나 조상의 신주를 숨겨두었던 장소들이다.⁷⁷⁾ 그러니까 조상신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이 이 후 신주 혹은 위패로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상고인들의 생육숭배에서 비롯된 혈족 조상에 대한 문화사유가 '祖'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남성 생식기를 상징하는 묘에 신주 또는 신령에 대한 제사를 나타내는 示가 더해져 祖가 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혈족 존속과 번성을 위한 남근 숭배에서 비롯된 부계사회 생육숭배 문화는 후손 번성과 선조에 대한 숭배로 전환되었고, 이런 인식의 변화가 '祖'에 반영되어 조상 혹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종묘의 의미로引申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나오는 글

본고에서는 중국의 제사문화와 '示' 부수 한자들의 근간인 '示'와 '祭', '祀'를 살펴 보고, 『說文解字』의 '示' 부수 漢字들 중 제사의 주요대상을 대표하는 天地 神靈 '神'과 '祇', 토지 신령 '社', 인간 신령 '祖'를 문화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중국의 제사 문화와 그 文化思維를 이해해보았다. 天地人을 대표하는 신령은 고대 중국의 우주관과도 일치하므로, 그들을 대상으로 한 제사문화에는 고대 중국인의 문화사유가 투사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祭'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로 신령에 대한 숭배를, '祀'는 어떤 신령에게 제사지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上古人들의 제사문화를 짐작할 수 있다. 제사는 上古시대로부터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중국 전통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기에, 이에 대한 고대 중국인들의 인식이 '祭'와 '祀'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고인들의 천지와 신령에 대한 숭배와 경외심은 농경 중심의 고대 중국 사회에서 천지에 대한 제사로 구체화되었다. 때문에 천지에 대한 제사행위에는 만물을

77) 劉志成, 앞 책, 334-335쪽 참조.

주재한 대상에 대한 숭배와 함께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는 고대 중국인들의 문화 사유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종족의 번성과 평안함을 기원했던 상고인들의 소망은 씨족 선조에 대한 숭배, 그리고 시조와 여러 조상들에 대한 숭배로 이어졌다. 상고인들은 사람이 죽더라도 靈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영혼불멸을 믿었기에 후손의 안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상 신령에 대한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다.

甲骨文과 金文의 '示' 字形은 제사 물품을 올려놓던 돌 탁자로, 신주의 추상적 형태라 할 수 있다. 示는 이후 天神과 地神 혹은 先公先王의 통칭 등으로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示는 곧 신주라 할 수 있다. 『說文解字』에서도 천문의 변화의 관찰을 통해 어떤 징조를 암시하는 것, 신의 일을 보여주는 일 '神事'를 示라 설명하였으니, 여기에는 어떤 신령이 재앙과 복을 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상고인들의 신령 숭배의 문화사유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번개를 나타내는 '申'은 天神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기에 제사의 대상이 되어 오랫동안 숭배되었다. 本義가 번개 치는 모습인 申에 示가 더해져 '神'이 된 것은 하늘의 신령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천문현상으로 징조를 나타내는 '示' 역시 하늘의 신령인 천신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은 또 신주 혹은 신주에 대한 제사를 나타낸 것이기도 하므로, 申에 示가 더해진 神은 만물을 주재하는 존재, 즉 하늘의 신령이 더욱 구체화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해자』에서 '祗'를 "땅의 신으로, 만물을 드러내는 존재"라 설명한 것은 땅을 하늘과 함께 또 하나의 만물의 주재자로 숭배하였던 상고인들의 인식과 관계가 있다. 천신이든 지신이든 이것들은 모두 인류의 생명과 존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 이들 신령에 대한 숭배는 상고시대부터 제사행위로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문현상을 주관하는 하늘과 만물을 포용하고 있는 땅은 세상만물의 주재하는 신령으로 숭배되어 지속적으로 제사의 주 대상이 되었고, 이와 같은 고대 중국인의 문화사유는 '神'과 '祗'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土'와 '示'의 합성자인 '社'는 토지 신을 상징하는 동시에 토지 신에 대한 제사를 나타낸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社樹를 심어 토지 신이 있는 것을 표시하기도

하였지만, 최초의 社는 하늘이 드러난 곳에 단지 이것을 표시할 수 있는 흙덩어리를 쌓아올려 놓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광활한 대지 중 생산물을 주관하는 신령 즉 토지 신에 대한 제사가 土에 示를 더해 '社'로 나타난 것이므로, 여기에는 생산물에 대한 감사와 풍요를 기원하고자 했던 고대 중국인들의 문화사유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春社와 秋社, 高禖神에 대한 제사를 통해 고대 중국의 토지 신에 대한 제사의 규모와 그 성대함을 짐작할 수 있다. 社에 대한 제사를 통해 땅의 은혜에 정성스럽게 보답하도록 백성을 가르쳤던 것이니, 여기에는 농경사회 이후 토지를 자신들의 존재와 생활 유지의 근원이라 여겼던 당시 사람들의 문화사유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男根을 상징하는 '畺'에 신주 또는 신령에 대한 제사를 나타내는 '示'가 더해져 '祖'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혈족 존속과 번성을 위한 남근 숭배에서 비롯된 부계 사회 生育숭배 문화는 후손 번성과 선조에 대한 숭배로 전환되었고, 이런 인식의 변화가 '祖'에 반영되어 조상 혹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종묘의 의미로 인신되었다. 그러므로 조상 신령에 대한 제사로 조상에 대한 감사와 후손의 번성과 구복을 기원하였던 고대 중국의 종묘 제사에는 상고인들의 생육숭배에서 비롯된 혈족 조상에 대한 문화사유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국문서적

- 窪德忠·西順藏 역음, 조성을 옮김, 『중국종교사』,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6.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은봉 옮김, 『종교형태론』, 파주, 한길사, 2002.
 왕닝·시에퉁위엔·리우광 저, 김은희 역, 『설문해자와 중국 고대문화』, 서울, 學古房, 2010.
 염정삼, 『설문해자주부수지역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국문논문

- 서재선, 「중국 문자에서 본 祭祀文化에 관한 고찰 -《說文解字》"示部"를 중심으로-」, 『동북

아 문화연구』17집, 2008.

이인경, 「漢字에 투사된 고대 중국인의 生育崇拜 문화」, 『중국학연구』 77집, 2016.

중문서적

(漢)何休, 『春秋公羊傳何氏解詁(四部備要)』, 臺北, 中華書局, 1970.

宋兆麟·黎家芳·杜耀西, 『中國原始社會史』, 北京, 文物出版社, 1983.

林尹 注譯, 『周禮今注今譯』,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85.

(清)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司馬遷 撰,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92.

張雙棣 外 譯注, 『呂氏春秋譯注』,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3.

黃永堂 譯注, 『國語全譯』,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5.

金良年 撰, 『論語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李學慳 主編, 『禮記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 『現代漢語詞典(修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1999.

劉志成, 『文化文字學』, 成都, 巴蜀書社, 2001.

臧克和 外 校訂, 『說文解字新訂』, 北京, 中華書局, 2002.

李學勤 主編, 『論語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左民安, 『細說漢字』, 北京, 九州出版社, 2005.

穀衍奎, 『漢字源流字典』, 北京, 華夏出版社, 2006.

(清)陳立 撰, 『白虎通疏證』, 北京, 中華書局, 2007. 方勇 譯注, 『墨子』, 北京, 中華書局, 2015.

徐中舒 主編, 『甲骨文字典』,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2016.

중문논문

雷漢卿, 「釋社」, 『古漢語研究』 第3期, 1995.

雷漢卿, 「《說文》“示部”字所反映的古代宗教文化釋證」, 『四川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期, 1997.

李建國, 「從示部字族探討祭祀禮儀文化」, 『價值工程』.

李琢·李萍, 「《說文解字》“示部”反映的祭祀文化」, 『廣西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0卷, 2008.

胡靜, 「文化學視覺下的“示”部字與鬼神思想」, 『安徽文學』 第11期, 2009.

單曉琳, 「《說文解字》“示”部字看上古的自然崇拜」, 『西南科技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26卷, 2009.

尹玉龍, 「淺析《說文解字·示部》字與上古祭祀習俗的互現性」, 『河北北方學院學報(社會科學版)』第28卷, 2012.

기타

<http://www.zdic.net>

〈Abstract〉

Cultural Perception of Ancient Chinese as Reflected on Chinese Characters
Related with Ancestral Rites Accompanying '示'
— Focused on '神' '祇' '社' '祖' Representing the Gods of Heaven, Earth, People —

Lee, In-Kyung

This study examined ancestral rite culture of ancient China, and '示' as the root of Chinese characters accompanying '示' as well as '祭', '祀' and conducted analysis of Chinese characters that could be main objective of ancestral rites: '神', '祇' gods of heaven and earth symbolic of nature; '社' god of earth; '祖' representing god of humans. By doing so, the study sought to understand ancestral rite culture of the ancient Chinese and their cultural way of thinking.

Worship and respect of heaven and earth, god of nature among the ancient humans was materialized by ancestral rites for heaven and earth in the mainly agricultural ancient Chinese society. Wishes of the ancient people for prosperity and peace of their tribes were connected to worship for their family ancestors and for the progenitor and a number of other ancestors. Therefore, we can say that ancestral rite culture of ancient China, centered on heaven and earth, and ancestral god, affected structure and formation of Chinese characters.

'示', figuratively expressing a stone embedded with spirits of god in the ancient

characters, was a symbolic sign representing gods and could be an ancestral tablet, giving birth to 神. Heaven that governs all the astronomical phenomena, and earth that embraces all the things were worshipped as gods governing all the things in the universe and continued to become the main object of ancestral rites from the ancient time. Cultural way of thinking of the ancient Chinese as such was reflected on '神' and '祇'.

'社', a compound of '土' and '示', symbolizes god of earth as well as ancestral rite for the same god. Ancestral rites for god of earth - god governing natural products in the vast span of earth - found its expression by '社' that added 示 on 土. This might be the result of reflection of cultural way of thinking among the ancient Chinese who expressed gratitude for natural products and wished for the abundance.

Culture in worship for raising of patriarchal line - derived from phallic worship for survival and prosperity of the family - shifted to worship for prosperity of descendants and worship for ancestors. This cognitive change might be reflected on '祖', which has the meaning of ancestors or ancestral rites for them as a result.

Key Words: Chinese characters with 示, Ancestral rite culture, Cultural way of thinking, God of heaven, earth, humans, Worship

이 논문은 2017년 10월 8일에 접수되어 2017년 11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7년 11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